

세계도시동향

Global Urban Trend

2019년 세계 주요도시 시장 신년사(요약)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시

독일 베를린시, 프랑크푸르트시

미국 뉴욕주, 캘리포니아주, 뉴욕시, 보스턴시, 샌디에이고시

스페인 바르셀로나시

영국 런던시

이탈리아 밀라노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시

일본 도쿄도, 교토시, 오사카시

중국 베이징시

캐나다 밴쿠버시, 에드먼턴시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케이프타운	김소망	시애틀	강민규	오사카	권용수
암스테르담	장한빛	시카고	김영준	베이징	박성은
베를린	신희완	스톡홀름	문선우	상하이	문혜정
	유진경		허윤희	에드먼턴	장지훈
	홍남명	바르셀로나	진광선	토론토	고한나
뉴욕	윤규근	런던	오도영		김용훈
	이수진	버밍엄	정기성	보르도	김준광
	이정근	피렌체	김예름	파리	배세진
	정수지	자카르타	박재현	시드니	정용문
로스앤젤레스	최윤경	도쿄	박재호		
샌프란시스코	김민희		이용원		

2019년 세계 주요도시 시장 신년사(요약)

네덜란드	암스테르담市	팜케 할세마(Femke Halsema) 시장	1
독일	베를린市	미하엘 뮐러(Michael Müller) 시장	4
	프랑크푸르트市	페터 펠트만(Peter Feldmann) 시장	6
미국	뉴욕주	앤드류 쿠오모(Andrew M. Cuomo) 주지사	8
	캘리포니아주	개빈 뉴섬(Gavin Newsom) 주지사	10
	뉴욕市	빌 더블라지오(Bill de Blasio) 시장	12
	보스턴市	마티 월시(Marty Walsh) 시장	17
	샌디에이고市	캐빈 팔코너(Kevin Faulconer) 시장	19
스페인	바르셀로나市	아다 콜라우(Ada Colau) 시장	21
영국	런던市	사디크 칸(Sadiq Khan) 시장	23
이탈리아	밀라노市	주세페 살라(Giuseppe Sala) 시장	24
인도네시아	자카르타州	아니스 바스웨단(Anies Baswedan) 주지사	25
일본	도쿄都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지사	27
	교토市	다이사쿠 카도카와(門川大作) 시장	28
	오사카市	히로후미 요시무라(吉村洋文) 시장	30
중국	베이징市	천지닝(陈吉宁) 시장	32
캐나다	밴쿠버市	케네디 스튜어트(Kennedy Stewart) 시장	37
	에드먼턴市	돈 이베손(Don Iveson) 시장	39

네덜란드 암스테르담市

페멕 할세마(Femke Halsema) 시장

“우리는 희망찬 동시에 불안정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 암스테르담의 매력과 희망을 조정(Rowing)에 비유
 - 반년 전 취임한 페멕 할세마 시장은 조정으로 건강관리를 하며 암스테르담을 생각
 - 조정을 할 때마다 도시의 아름다움에 압도당하고, 뒤를 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조정의 특성을 희망에 빚댄 작가 리베카 솔닛(Rebecca Solnit)의 표현을 떠올림
- 도시는 성장하고 있지만, 해결해야 할 어두운 면도 함께 있어
 - 도시는 무서운 속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기업은 번창을 예측하고, 청년 실업률은 지난 몇 년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짐
 -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적절한 가격의 집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교육·구직 활동보다 마약 유통에 관심이 더 많은 청년이 적지 않은 현실

성장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힘써야

- 진정한 ‘모두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노력할 것
 - “이 도시는 누구의 도시입니까?”라는 질문의 모범답변은 “모두의 도시”이겠지만, 정작 모두가 그렇게 느낄 수는 없을 것
 - 많은 사람이 도시의 성장과 경제적 부유함, 그리고 도시가 제공하는 기회에서 소외당하고 있기 때문
 - 특정 지역이 가계부채·치안불안·마약범죄·가정폭력·사회적 갈등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상황
 - 빈곤·사회부적응·경제범죄 등을 해결하는 것은 도시정부의 목표이자 의무이며, 모든 암스테르담 시민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
- 누구의 도시인지를 묻기보다는 “암스테르담이 무엇입니까?”를 물어야 할 것
 - 지난 6개월간 수많은 시민을 만나본 결과 암스테르담은 ‘희망의 장소’라는 결론을 얻음
 - 암스테르담이 ‘희망의 장소’라는 것은 역사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이민자가 품었던 기대감, 노동자의 자녀가 차근차근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왔던 교육제도, 거리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냈던 모든 청년·성소수자·여성에게 바로 그 희망이 있음

암스테르담을 '희망의 장소'로 지켜내는 것이 우리의 임무

- 희망은 암스테르담 시민이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설 때 늘 함께 있었음을 아래와 같은 실제 사례에서 확인
 - 지난 여름에 열린 국제 에이즈 콘퍼런스는 HIV·AIDS와 전쟁의 선두에 선 도시라는 명성에 걸맞은 행사
 - 올가을 20주년을 맞는 IMC 주말학교는 빈곤지역에 거주하는 10~14세 청소년에게 일요일 수업을 제공하는 3년제 학교로, 20년간 수천 명의 청소년에게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지식과 자신감을 주었음
 - 암스테르담 북쪽 노드(Noord) 지역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는 재향군인들이 쉼터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도우며 자신도 재활을 하고 있음
 - 재향군인 쉼터 위쪽에는 젊은 세대가 서로 자신의 삶을 바로 잡고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반네(Banne) 공동체가 운영 중
 - 암스테르담 경제정책자문기구는 기업·대학과 함께 도시의 사회적 회복력(resilience)을 강화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중
 - 도시의 숨겨진 역사를 적극 발굴해내고 새로운 역사적 관점을 제시하는 Ons Suriname(※ 수리남은 과거 네덜란드 식민지)이나 The Black Archives와 같은 시민 단체 활동
 - 시는 기존의 추모비에 더해 네덜란드의 노예제도 역사 전반을 다루는 별도의 박물관 설립을 계획 중
- 여성 네트워크의 확대를 고대
 - 몇 주 전 관저에서 흐룻 바싱크(Groot Wassink) 시의원과 함께 50여 명의 여성을 맞이해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앞으로 이 자리가 확대되기를 희망
 - 참여한 시민은 교육자이자 자유시민으로 도시에 이바지하고 싶은 의사를 강력히 드러냈음
 - 암스테르담 750주년을 맞이하는 2025년에는 관저가 아닌 요한 크루이프(Johan Cruyff) 경기장을 다 채울 만한 규모의 여성 네트워크를 만나볼 수 있기를 고대
- 역사를 거울삼아 불명확한 미래로 함께 노를 저어 나가는 도시가 되기를 희망
 - 우리가 지켜온 유산과 역사에 스스로를 얽매지 말고, 역사를 뒤돌아보며 함께 미래를 향해 노를 저어 나아가는 도시를 만들기를 기대
 - 네덜란드계 미국인 여성 사회학자 사스키아 사센(Saskia Sassen)의 표현대로, “힘없는 사람도 여전히 문화와 역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곳”이 되기를 바람
 -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도시의 역사를 생각할 때, 토론을 기피해서는 안될 것

- 상업도시의 전통에 비춰볼 때 늘 새롭고 다른 것에 흥미를 가지 성향과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은 우리가 타고난 유전자와 같은 것
- 앞으로도 미지의 것을 포용하고 희망을 품는 능력으로 암스테르담이 세계적 명성을 떨치는 도시가 될 것을 기대
 - 로얄 콘체르트허바우(Concertgebouw) 오케스트라, 국립미술관, 홍등가뿐 아니라 뉴웨스트(Nieuw-West) 지역의 길거리 예술가, 북쪽 지역(Noord)의 래퍼, 남동 지역(Zuidoost)의 패션 디자이너 등의 활약으로 세계적 도시가 되기를 바람

<https://www.amsterdam.nl/en/news/new-year-s-address/>

<https://www.amsterdam.nl/bestuur-organisatie/college/burgemeester/speeches/nieuwjaar-toespraak/>

장한빛 통신원, hanbitive@gmail.com

독일 베를린市

미하엘 뮐러(Michael Müller) 시장

더 나은 미래 향해 나아가고 있는 베를린

- 많은 사람이 살고 싶어하는 베를린은 특별한 도시
 - “사랑하는 베를린 여성과 남성* 시민 여러분, 2018년은 우리에게 다사(多事)한 해였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베를린에서 삽니다. 수백만 명이 우리의 도시를 방문합니다. 왜냐하면 베를린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 베를린시장 미하엘 뮐러의 신년사 서문, 2018년 12월 31일
 - ※ 독일어 명사는 남성형과 여성형을 구분하며 관습적으로 남성형을 먼저 사용하지만, 최근 성평등문화의 영향으로 여성(Berlinerinnen)과 남성(Berliner) 순으로 표기
- 교통·일자리 등 여러 분야에서 경제적 성공을 확인
 - 새로운 지하철(U-Bahn)이 준비 중이고, 7천여 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마련
 - 당장 효과를 누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많은 것이 나아질 것
 - 학교 수리, 신규 주택 건설, 도로 공사 등 많은 공사현장은 베를린이 수년간의 긴축 재정 끝에 다시 투자를 시작하고 있다는 증명이며, 경제적 성공의 덕택
 - 베를린이 창업의 수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과학·연구에 가장 앞선 도시이자 수년간 평균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해왔던 덕분
 - 사회보장 납부의무(연금·건강보험 등)를 지는 좋은 일자리를 가진 사람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상태
- 누구나 호황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아니며, 그들의 어려움을 줄여줄 필요
 - 경제적 성공이 베를린을 살기 비싼 도시로 만들 수 있으며, 그 성장의 이익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의 어려움을 줄여줘야 할 것
 - 더 저렴한 교통티켓(Jobticket), 초등학교 급식 부모 부담금 철폐, 무료 학생 교통 티켓 등의 지원 정책을 펼칠 것
 - 베를린의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12유로(15,360원) 이상으로 올려 풀타임 최저임금 노동자가 현재는 물론 노후에도 재산을 늘릴 수 있도록 할 것
- 디지털화의 기회는 당연히 이용해야 하지만, 사회적 고민도 필요
 - 디지털 시대의 변화에 불안함을 느끼고, 혐오와 선입견을 부추기고, 근시안적 약속을 하는 이들이 많은 상황에 대항하여 단결해야 할 것

모든 다양성 포용하는 하나의 베를린, 자유·다양성의 도시로 남을 것

- 모든 개인적 배경·경험·삶의 방식과 함께하는 하나의 베를린을 지향
 - 올해 통일 기념 축제의 모토였던 ‘오직 여러분과 함께’(Nur mit Euch)는 여전히 활기차게 작동 중
 - 인종차별, 사회적 배제, 유대배척주의에게 주어질 자리는 없으며, 베를린은 자유와 다양성의 도시로 남을 것
- 모든 사람이 능력과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곳에서만 성공이 있기 때문
 - 최근 6억 유로(7,680억 원)를 베를린에 투자하기로 한 지멘스사의 결정이 그것을 증명하며, 여기에는 일자리와 부담 가능한 주택이 있는 새로운 구역이 큰 역할
- 370만 명의 시민 모두가 베를린이며, 안전하고 즐거운 도시를 만드는 데 공헌
 - 370만 명 모두가 안전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하나의 베를린을 만드는 데 이바지
 - “사랑하는 베를린 여성과 남성 시민 여러분, 여러분 중 다수는 공휴일에 병원에서, 양로시설에서, 소방서에서, 경찰서에서, 친인척을 위해 혹은 어떤 자원봉사를 위해서 일하셨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감사함을 여기에서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베를린이 인류애의 장소로 남아있게 도와주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ORu4qT1oBE>

<https://www.berlin.de/rbmskzl/aktuelles/pressemitteilungen/2018/pressemitteilung.770143.php>

<https://www.rbb24.de/politik/beitrag/2018/12/neujahrsansprache-michael-mueller-regierender-buergermeister-ber.html>

신 희 완 통신원, heewan.shin@gmx.de

독일 프랑크푸르트市

페터 펠트만(Peter Feldmann) 시장

“프랑크푸르트는 하나입니다”

- 2018년 여러 축제와 행사에서 모두가 하나라는 느낌을 체험
 - “구시가지 축제 때나, DFB-Pokal(축구대회) 트로피를 받을 때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되어 축하했으며, 이는 우리의 출신·사회적 지위·수입과는 무관했습니다”
 - 프랑크푸르트시장 페터 펠트만 신년사 서문, 2018년 12월 29일
 - 그 외 크리스마켓, 마인우퍼(Mainufer) 축제, 다양한 거리축제, 오순절 휴일 축제인 벨트셰스탁(Wäldchestag), 전통축제인 디페메쎬(Dippemesse) 등에서 프랑크푸르트 시민은 사회적인 단결을 축하하기 위한 기회를 발견
 - 따라서 다채롭고 다양성을 지닌 도시 프랑크푸르트에는 극우 활동에 종사하여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나 선동을 일으키는 사람을 위한 자리는 없을 것
 - 프랑크푸르트에서 ‘유럽의 맥박’(Pulse of Europe: 범유럽 지지 시민운동)과 같은 운동이 시작된 것은 우연이 아님
 - 12월 10일 국제 인권의 날을 맞아 파울 교회(Paulkirsche)의 조명 아래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불가침하다는 방향을 제시
- 구시가지 재건 등의 호재를 축하하고 위대한 시민의 죽음을 애도
 - 원본에 충실하게 재건된 구시가지는 단기간에 많은 대중을 끌어들이는 자석 역할을 해내고 있으며, 도시 중심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것
 - 프랑크푸르트 언덕 위의 중요한 사적이자 고고학 박물관인 프랑코노푸르(Franconofurd) 황제 궁전은 개관 몇 개월 만에 방문객 30만 명을 달성했고, 내년에는 독일 동화책의 주인공인 더벅머리 페터(Struwwel Peter) 박물관이 개관 예정
 - 두 명의 문화 개척자와 타인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의인의 죽음을 애도
 - 15개의 박물관이 모인 무지엄우퍼(Museumufer) 지역을 프랑크푸르트에 선사한 문화정치가 힐마르 호프만(Hilmar Hoffmann)과 사후 독일 문화상을 수상한 이스라엘계 독일 예술가인 막스 바인베르크(Max Weinberg)를 추모
 - 오스텐드거리(Ostendstraße) 지하철 역사 철로에서 타인을 돕다가 목숨을 바친 17세 무스타파 알프투 쇠젠(Mustafa Alptuğ Sözen)을 기억하고, 기념비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성장하는 도시, 인프라 확장·성장통 최소화 필요

- 곧 공식인구 75만 명 시대를 맞이할 예정, 인프라 확장과 함께 성장통을 최소화하는 것이 시의 주요과제
 - 저렴한 주택의 공급, 교육·환경·대중교통 투자에 집중
 - 시의 정치인들은 아동·청소년의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 14세 이하 청소년을 위한 수영장 무료입장, 저렴한 주택 건설과 홍보 등의 포괄적 조치에 합의
-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회계 운영 중
 - 도시 성장세 유지에 긴급하게 요청되는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할 예산 확보
 - 기업 세수가 19억 유로(2조 4,320억 원)에 달하고, 예비금도 비축 중
- 시의회와 정부가 힘을 모아 사회적 어려움 완화와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특별히 자원봉사자의 노고에 감사를 표시
 - 프랑크푸르트의 자원봉사자는 스포츠클럽, 청소년 단체, 지방자치단체 소속 유무와 상관없이 우수한 활동을 보이고 있으며 마땅히 격려와 감사를 받아야 할 것

급진적 혼란 증가·확실성 감소의 시대, 다양성·관용 바탕으로 미래 대비

- 브렉시트와 독일 내 극우파 급증 등의 위기에 다양성과 관용으로 대응
 - 프랑크푸르트는 경제력, 문화 다양성, 시민참여 등이 발달해 있어 다른 곳에 비해 사회적 긴장이 도드라지지 않은 특수한 도시이며, 이러한 특수성을 가꿔야 할 것
 - 다양성과 관용은 미래에도 프랑크푸르트와 다른 도시를 구별하게 해주는 긍정적 요소가 될 것으로 기대
- 다양한 도시 현안의 계획 발표
 - 파울교회의 개보수 범위·형태 결정, 그린벨트 토지정리, 획스트(Höchst) 지역 병원건물과 볼롱가로(Bolongaro) 궁전의 리모델링 등의 과제를 실용적이고 창조적인 방식으로 진행할 것
 - 정당의 정치 논리에 이끌리지 않고 모든 시민의 이익을 추구
 - 2019년 새로운 프랑크푸르트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
 - 100년 전 에른스트 메이(Ernst May)가 고안한 도시계획은 지금도 많은 시민의 지지와 갈채를 받고 있으며, 이에 걸맞은 기념일을 준비

<https://www.frankfurter-stadtmagazin.de/2018/12/29/neujahrsgrusswort-von-stadtverordnetenvorsteher-st-ephan-siegler-und-oberbuergermeister-peter-feldmann/>

홍 남 명 통신원, dangmu7722@gmail.com

미국 뉴욕주

앤드류 쿠오모(Andrew M. Cuomo) 주지사

주요 사안의 법제화·예산안 골자로 한 신년사 발표

- 혼잡통행료 부과 제안
 - 뉴욕시 맨해튼 60번가 남쪽 지역에 2021년부터 혼잡통행료를 부과할 계획
 - 구체적인 사항은 입법기관과 조정해야 하지만, 사업자와 저소득층에게는 할인 혜택을 주고 혼잡통행료로 조성된 기금은 노후 지하철 보수에 활용할 계획
- 교육비 펀딩 확대
 - 지역 간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9억 5,600만 달러(1조 800억 원) 규모의 추가 교육예산을 확보·활용할 예정
- 신속한 사법 재판을 돕는 절차 개선
 - 지금까지는 증인 보호 등의 이유로 범죄 증거자료를 재판 전에 공개할 수 없었지만, 절차 개선으로 범죄 관련 기록을 수사 시점부터 사법부에 모두 공개
- 총기 규제 강화
 - 반자동 총기를 자동으로 개조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총기 개조를 금지하고, 총기 구매 시 대기기간을 기존 3일에서 10일로 늘림
- 아동 성폭력 피해자 보호 법안(Child Victims Act) 개정 제안
 -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를 피해자가 만 23세가 되는 시점까지로 규정하는 현행법을 개정해 공소시효를 피해자가 만 55세가 되는 시점까지 연장하고자 함
 - 어린이 성폭력·학대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에게 사건을 신고하고 소송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기 위함
- 불법체류자 자녀를 위한 드림 법안(DREAM Act)의 제정
 - 주정부는 불법체류자와 그 자녀가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
 - 불법체류자 가정의 자녀도 행정상 문제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지원
 - 대학교 학비 장학금 펀드를 조성하고, 해당 가정이 등록금 마련 저축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
 - 2019년 1월 중 통과되었으며,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불법체류자 가정 자녀는 반드시 뉴욕주 소재 고등학교 학생이어야 함

- 청정에너지로 전환
 - 2040년까지 청정에너지 사용률 100%를 달성하고, 수자원 기반시설에 25억 달러(2조 8,250억 원)를 투자할 것
- 플라스틱 용기 보증금 환불제도 도입
 - 주류를 제외한 음료의 플라스틱 용기에 0.05달러(56원)의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를 시행할 계획(주류 포장용기는 이미 보증금 환불제도를 시행 중)
- 주정부 업무 관련 계약 사항의 감사 실시
 - 최근 뉴욕주 올버니(Albany)에서 발생한 부정부패 사건으로 25만 달러(2억 8,250만 원) 이상 규모의 정부계약을 대상으로 사전 감사를 시행할 계획
- 쿠오모 주지사는 이번 신년사에서 발표한 법안의 법제화를 최대한 서두를 계획

<https://www.ny1.com/nyc/all-boroughs/news/2019/01/15/governor-cuomo-state-of-the-state-address>

김민희 통신원, minhee.kim.crp@gmail.com

미국 캘리포니아주

개빈 뉴섬(Gavin Newsom) 주지사

주정부가 직면한 여러 문제의 행정 방향 제시

- 고속철도 개통으로 주민편의 향상하고 경제 활성화 도모
 - 고속철도는 과거 주지사들도 지역교통 개선과 주민편의 향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왔던 사업으로, 이번 행정부에서 실현하고자 함
 -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주 북부와 남부를 연결하는 새로운 노선을 제안
 - 과거의 안과 비교해볼 때 시간과 비용면에서 현실성이 있다는 평가
 - 캘리포니아 센트럴 밸리(Central Valley)는 통행량이 많고 통근 거리가 먼 지역으로, 고속철도를 건설하면 지역의 잠재력을 깨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안정적인 수자원 공급 시스템 구축
 - 캘리포니아는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이 필요하고 농업용수 수요도 큰 지역으로, 수자원 관리가 매우 중요
 - 하지만, 기후변화로 물 공급 지속성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강력한 경제력은 환경문제를 심화시키는 중
 - 지진과 해수면 상승에서 캘리포니아주의 수자원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는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2개의 터널을 건설해 수자원 시스템을 구축하려던 지난 주정부와 달리 1개의 터널을 활용하는 시스템을 지지
- 안전한 먹는 물 공급 예산 확보 필요
 - 캘리포니아주 학교나 커뮤니티에는 먹는 물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곳이 많아 지속적 펀딩으로 예산 확보가 필요한 시점
 - 특히 상수도에는 우라늄, 납, 비소 등의 물질이 검출되는 곳이 많은 것이 문제
-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재정 계획 수립
 - 60일 이내에 캘리포니아주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종합 재정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미국에서 가장 우수한 청정에너지 정책으로 만들 계획
-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등 교육문제 해결에 적극 투자
 - 공립학교의 교사 부족, 차터 스쿨(Charter School: 공립 혁신학교와 유사) 증가, 지역 간 교육격차 등의 문제 발생

- 주 경제 상황은 좋지만, 교육예산은 균형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고 있음
 - 캘리포니아주의 교육비는 미국 전체 주 가운데 41위로 변화가 필요한 수준
 - 7년 전 473억 달러(61조 4,900억 원)였던 교육 투자비를 800억 달러(90조 2,800억 원) 이상으로 올릴 계획
- 늘어나는 노숙자 문제 대응 방안 마련
 - 캘리포니아의 노숙자 증가문제는 이미 공공 건강의 위기로 다가오고 있음
 - 쉼터나 임시 거주시설 외에도 종합적인 개인 지원방법을 시행하되 각 지역(도시나 군 단위)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노숙자 문제는 영구적인 주거 문제 해결에 답이 있다고 밝힘
-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노인정책 수립
 - 현재 캘리포니아는 역사상 처음으로 노인의 수가 어린이의 수를 넘어선 상태
 - 노인 인구는 10년 뒤 4백만 명, 25년 안에 8백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중 절반은 장기적 돌봄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어 새로운 노인정책이 필요한 시점
 - 개인 중심의 노인 관리, 공공서비스, 사회적 소외,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이동수단, 간호 및 관련 서비스의 부족, 재택 서비스 등을 다루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
 - 치매 예방과 준비를 위한 TF를 구성하여 캘리포니아 최초로 관련 리서치를 진행
- 도시계획 추진 예산 지원
 - 캘리포니아주의 여러 지역에서 예산상의 한계로 새로운 개발·도시계획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주택 관련 계획의 업데이트, 조닝 개선, 주택 건설 등의 예산 지원을 추진

<https://www.gov.ca.gov/2019/02/12/state-of-the-state-address/>

김민희 통신원, minhee.kim.crp@gmail.com

미국 뉴욕市

빌 더블라지오(Bill de Blasio) 시장

‘미국에서 가장 공정한 도시’ 슬로건

- 작년과 같은 ‘미국에서 가장 공정한 도시’(The Fairest Big City in America)라는 슬로건 아래 9가지 주요 정책을 포함한 신년사를 발표
 - “뉴욕은 이미 전 세계 최고의 도시이고 이제 우리는 살기에 가장 좋은 도시가 필요하다. 자신의 노동에 대한 보상과 사회가 이룬 번영을 함께 나누는 것이 공정한 도시의 의미이며, 뉴욕시민은 이를 마땅히 누릴 자격이 있다.”
- 뉴욕시장 빌 더블라지오 신년사 발췌, 2019년 1월 10일

1. 모든 뉴욕시민에게 건강보험 제공

- 정책 배경: 미국은 한국과 달리 모든 국민이 같은 혜택을 받는 건강보험이 없음
 - 대부분 직장에서 제공하는 보험을 이용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직장이 없으면 어른은 물론 그 아이까지도 꼭 필요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큰 사회적 문제
 - 오바마 전 대통령이 시작한 Affordable Care Act(일명 ‘오바마 케어’)에 힘입어 현재 800만 명의 뉴욕시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했으며, 2012년에 건취 건강보험 미 가입자 비율은 절반으로 줄어듦
 - 하지만, 여전히 60만 명의 시민은 건강보험 없이 지내고 있음
 - 이 중 절반은 Affordable Care Act에 가입할 수 있지만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나머지 절반은 현재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
-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상황에 맞춰 2가지 프로그램을 개발
 - 이민자 신분이나 기타 이유로 현재의 건강보험을 누릴 수 없는 시민을 위해 NYC CARE 프로그램을 진행
 - 이들은 뉴욕시 전역에 있는 70개 공공의료원에서 모든 기본적인 진료를 포함해 심장 질환과 출산 등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건강보험에 가입할 조건은 되지만 아직 가입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공공의료 제공 보험사(MetroPlus)가 혜택을 제공
 - 공공의료원에서 정신건강 상담, 약물중독 상담, 기본 진료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음

2. 법으로 보장된 유급휴가

- 정책 배경: 미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법으로 보장된 유급휴가가 없는 나라
 - 유급휴가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복지의 일부로 여겨지기 때문에 직장에 따라 휴가 일수가 천차만별
 - 현재 뉴욕에서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시민의 30%,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시민의 72%는 단 하루의 유급휴가도 없이 지내고 있음
 - 아픈 가족을 돌봐야 하거나, 가족의 장례식이 있거나, 본인이 아플 때도 휴가를 내면 그 날의 급여는 받지 못하는 상황
- 뉴욕시장은 5인 이상 근무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에 일 년에 적어도 10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법안을 시의회에 제출
 - 이 법안은 풀타임뿐 아니라 파트타임 근무자에게도 적용
 - 근무를 시작한 지 120일이 지나면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올해 주어진 휴가를 다 쓰지 못했을 때에는 다음 해에 사용할 수 있음

3. 만 3세부터 무료 보육 프로그램(3-K For All) 제공

- 정책 배경: 무료 공교육 프로그램의 확대가 좋은 평가를 받음에 따라 연령 제한을 더욱 낮추기로 결정
 - 현재 뉴욕시장의 가장 성공적인 프로그램은 기존 만 5세부터 제공되는 무료 공교육(Kindergarten)을 만 4세에게도 적용한 Pre-Kindergarten(Pre-K)
 - 양육비 부담 때문에 부모의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한 제도
 - 기존의 Pre-K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만 3세 아동에게도 무료 보육 서비스를 작년 부터 제공
 - 뉴욕시 전체 평균소득 대비 소득 수준이 낮은 6개 지역에서 먼저 시행하고, 올해 6개 지역을 추가로 선정
 - 앞으로 뉴욕시의 모든 만 3세 아동이 있는 가족이 2~3년 안에 무료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점차 확대할 계획

4. 프리랜서·개인사업자 보호

- 정책 배경: 고용조건과 복지 수준이 열악한 프리랜서·개인사업자
 - 뉴욕시에는 약 40만 명의 시민이 프리랜서·개인사업자 형태로 경제활동 중
 - 하지만, 유급휴가가 없고 건강보험도 제공받지 못하며 고용주와 같등이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는 등 고용·복지 수준이 열악

- 관련 부서에 프리랜서 보호 역할을 부여하고 새로운 복지모델을 개발 중
 - 기존 ‘소비자 보호국’(Department of Consumer of Affairs)의 역할을 고용자 보호까지 확대하고, 부서 명칭도 ‘소비자·노동자 보호국’(Department Consumer and Worker Protection)으로 변경
 - 해당 부서는 노동자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모든 뉴욕시 지역법을 집행하고, 프리랜서의 보수 지급이 늦어졌을 때 그들을 대변하여 문제 해결을 지원
 - 고용주로부터 제대로 된 복지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돕기 위해 시의회와 파트너십을 맺고 새로운 복지 제공모델을 연구 중
 - 첫 번째 시도는 택시 운전사와 최근 급속하게 증가하는 승차공유 서비스 회사에 고용된 운전사를 위한 복지재단 설립을 연구 중

5. 세입자 보호 위한 시장 직속 팀(New Mayor’s Office to Protect Tenants) 신설

- 신설 팀에 세입자 권익 옹호와 연관된 시정부 내 여러 부처의 역할을 집중할 계획
 - 건축물관리 관련법을 위반한 건물주에 부과하는 벌금을 5배 올리고 관련법을 더 강화할 것을 주정부에 요구
 - 관련 시정부 부서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모아 세입자 분쟁 이슈가 심한 타깃 지역을 선정하고 시정부에서 체계적으로 개입할 방안을 연구
 - 주택으로 사용되는 건축물 목록이나 세금보고 자료 등의 데이터를 이용해 세입자 분쟁 이슈가 많이 일어날 지역을 예측하는 데이터 모델을 개발·활용할 예정

6. 대중버스 개선

- 매일 250만 명의 시민이 대중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버스 이용률은 매년 감소
 - 감소 이유는 배차 간격의 불규칙성과 7km/h밖에 되지 않는 평균 속도 때문
- 2020년까지 버스 평균 속도를 25% 높이고 이용률을 올리기 위한 정책을 기획
 - 버스 노선 개선, 빠른 승하차가 가능하도록 정류장 디자인 개선, 급행 버스 노선 확대 등
 - 300여 개의 교차로에서 버스가 먼저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버스전용차선 감독을 더 엄격하게 하기 위해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전담 경찰차량을 배치

7. 뉴욕시 페리 서비스 확장

- 뉴욕시 페리 노선을 확대해 시민의 이동을 돕고 관광자산으로 활용할 계획

- 뉴욕시는 3개의 큰 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정부는 출퇴근길 교통 완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사이를 오가는 페리 노선을 운영 중([그림 1] 참고)
- 2021년까지 페리 노선을 더욱 늘려 시민의 이동을 돕고 관광자산으로 활용할 계획
 - 2020년에는 맨해튼 서쪽 미드타운과 스탠포드 아일랜드를 연결하는 노선을, 2021년에는 브루클린 남쪽에 있는 코니 아일랜드와 맨해튼 월스트리트를 연결하는 노선을 새로 개장할 예정
 - 기존 노선도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지속해서 노선을 개선하고 새로운 역을 추가할 예정
 - 페리 탑승 가격은 뉴욕시 지하철 비용(2.75달러(3천 원))과 같음



[그림 1] 뉴욕시 페리 노선과 향후 계획

8. 보편적인 은퇴 연금 제도

- 정책 배경: 현재 50~64세 뉴욕시민 중 40%는 1만 달러(1,100만 원)도 안 되는 은퇴 연금을 갖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저소득층 여성
- 모든 시민이 개인연금 저축 계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시의회에 제출
 - 1년 소득의 5% 정도를 월급에서 자동이체하며 약 4%의 순수익률을 약속
 - 연금 펀드는 외부의 전문 투자회사가 관리하지만, 뉴욕시의 은퇴 보장 기금팀 (City's Retirement Security Fund)이 그들의 투자 활동을 감독하며 아주 적은 비용의 투자 수수료를 시민에게 요구할 것
 - 연봉 50,850달러(5,600만 원, 뉴욕시민 연봉 중위값)의 근로자가 30년 동안 이 은퇴 연금 제도를 이용하면 14만 6,274달러(1억 6천만 원)를 저축 가능

9. 공립 유치원·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무료 시력 테스트와 안경 제공

- 정책 배경: 뉴욕시 학생의 25%가 안경이 필요하지만 현재 5% 정도의 학생만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상황
 - 언급했듯이, 전 국민 대상 건강보험이 없어 각 가정이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어린이가 접근할 수 있는 의료 혜택도 큰 차이가 나기 때문
- 시정부는 공립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중 안경이 필요한 어린이에게 안경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
 - 와비 파커(Warby Parker)라는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어 제공
 - 이미 평균소득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정책을 뉴욕시 전체로 확대
 - 시 교육청과 공공건강 부서에서 무료 시력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14만 명의 어린이가 검사를 받고 약 3만 3천 명의 어린이가 안경을 무료로 받을 전망

<https://www1.nyc.gov/office-of-the-mayor/news/022-19/transcript-mayor-de-blasio-presents-2019-state-the-city>

<https://www1.nyc.gov/office-of-the-mayor/state-of-the-city.page>

이 수 진 통신원, nowsujinsays@gmail.com

미국 보스턴市

마티 월시(Marty Walsh) 시장

주택·다문화·환경·사회 기반시설 등의 계획 밝히고, 연방정부에 비판 목소리

- 산업·경제
 - 시 역사상 최저 실업률(2.4%)과 미국 내 2위의 중산층 진입률을 기록
 - 모바일 경제 개발센터(Mobile Economic Development Center)가 청년 직업 훈련과 자영업자 지원 예정
- 행정·교육
 - 도서관 개보수에 1억 달러(1,100억 원) 이상 투자하고, 중앙도서관 보수공사에도 7,800만 달러(858억 원)를 투입
 - 공립학교 건립과 시설 보강에 3억 달러(3,300억 원)를 투자하고, 이후 8억 달러(8,800억 원)를 추가로 투입할 계획
- 도시계획·주택
 - 시정부의 자체적인 주거 정책과 사회기반 정책을 주도하며, 이와 관련된 연방정부의 정책 부재를 지적
 - 중산층 지원 정책으로 5년 이내에 1,000여 명이 새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관련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어 1,600여 명의 노숙자에게 거주지 제공 예정
 - 주택 지원을 위한 Boston's Way Home 펀드를 조성
 - 4년간 1천만 달러(110억 원)를 모금하는 것이 목표이고, 1년만에 목표의 절반 이상을 달성
 - 철저한 세무관리로 미국 내 최저 수준의 주택세율 유지
- 환경·안전
 - 항만 보강계획을 시행해 홍수로부터 시민 보호
 - 백악관의 기후변화 정책 포기 비판
 -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달성
 - 워싱턴 연방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주택·교통·환경 분야의 투자를 요청할 것
 - 5년 전 대비 범죄율이 25% 감소했으며, 보스턴 경찰 생도 프로그램을 부활할 예정
 - 최초의 소방관 양성 프로그램(Fire Cadet)을 제안

- 약물 중독자를 구제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아편(Opioid) 공급자를 법적 조치 중
- 사회·복지
 - 도시공원 추가 건설로 모든 주민이 걸어서 10분 안에 공원을 찾을 수 있는 동부 유일의 도시가 됨
 - 시 역사상 가장 다양한 인종 비율로 행정부를 구성
 - 2020년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NAACP: 미국의 대표적 인권 단체) 대회의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것을 치하
 - 행정 부처 전 직원의 다문화 교육 과정 이수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
 - 노인위원회 확대 운영 예정
 - 연방정부가 2020년 인구조사 결과를 이용해 연방기금 등 시정부의 권한을 약화 시키려는 시도를 비판
 - 연락관을 임명해 정확한 인구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공표
- 문화·관광
 - 거리 예술 문화를 재건하기 위해 예술가를 지원
 - 양성평등 달성을 위한 노력과 LGBTQ 커뮤니티 지원을 계속할 예정

<https://www.boston.gov/news/state-city-2019>

이 정근 통신원, garuk300@gmail.com

미국 샌디에이고市

캐빈 팔코너(Kevin Faulconer) 시장

250주년 맞이해 평등·인권 지지하며 주거문제 해결 약속

- 국민의 실질적 생활에 영향을 주는 연방정부의 섯다운(Shut Down: 업무 중단)에 반대하며, 주거·노숙자 문제 등의 현안 해결 방안을 발표
 - 트럼프의 연방정부는 인종·소득계층·종교·젠더·정치적 성향 등으로 차별하고 분할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평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샌디에이고시는 상생과 연합을 강조
 - 주택공급을 늘리고, 노숙자를 줄이며, 지역단위 개선사업에 더 투자할 것
- 노숙자 문제
 - 시정부는 노숙자 대상 서비스는 늘려가되 지역 내에 수용하지는 않으려는 기존의 방식(NIMBY)을 버리고 이들을 적극 수용해야 함을 주장
 - 노숙자와 그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일에 초점
 - 2019년에는 주정부가 지원하는 안내 센터(Navigation Center)를 오픈하여 노숙자 지원 업무를 일원화하고,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도 함께 늘려갈 것을 발표
 - 주거지 마련을 우선 하되, 주택공급에만 초점을 두지 않는 방법(Housing first - but not housing only)으로, Safe parking programs, storage centers, bridge shelters와 같은 정책을 추진
 - 밴쿠버, 로스앤젤레스, 새크라멘토 등 주변 지역의 귀감이 됨
- 주택 정책
 - 시정부는 지난 5년간 연방정부의 도움으로 4,000세대 이상의 저소득층 주택을 공급했지만, 앞으로 35,000세대 이상이 더 공급되어야 한다고 예측
 - 그간 주택 건설을 주춤하게 했던 해안지역 고도제한을 완화하고, 주택가격 상승 원인 중 하나인 주차공간 관련 규제를 개선할 계획
- 공공서비스 개선과 도시 안전성 유지
 - 시정부는 지난 5년간 기반시설 예산을 3배 이상 늘려 공원·레크리에이션 센터·커뮤니티 센터 등을 개선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새로운 도서관 개관 등을 계획

-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선정된 샌디에이고시는 ‘Clean SD’ 이니셔티브를 바탕으로 도시 미관과 공공위생도 증진하고자 노력
- 환경
 - 최근 캘리포니아 산불은 지구온난화의 영향 때문임을 강조하고, 도심 통행계획 (Downtown Mobility Plan)을 바탕으로 자동차 통행을 줄이고 자전거·보행자 통행 비율을 높이고자 함
 - 2019년에는 캘리포니아주 전체에서 가장 큰 규모의 물 재활용 프로그램인 ‘The Pure Water’ 이니셔티브를 시행할 계획
 -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https://www.sandiego.gov/blog/mayor-faulconers-2019-state-city-address>

김민희 통신원, minhee.kim.crp@gmail.com

스페인 바르셀로나市

아다 콜라우(Ada Colau) 시장

범죄·마약 증가 문제에 적극 대처

- 도시 내 도난범죄 증가와 마약밀매 문제를 인정하고, 경찰 추가 배치 등 적극 대응
 - 도시의 안전문제를 차기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정당을 비판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대응 중임을 강조
 - 마약밀매와 전쟁에 임하고 있으며, 100곳에 넘는 마약밀거래소를 단속
 - 도난범죄가 주로 발생하는 씨우닷 베야(Ciutat Vella) 지역과 아이쌘쁠르(Eixample) 지역에 경찰 병력 100명을 추가 배치했고, 올여름 300명을 더 투입할 계획
 - 도난 등의 경범죄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법적 처벌을 피해가기 어렵게 하는 2심 법원의 출범을 환영

승차공유 서비스의 규제 등 교통정책 제안

- 택시와 승차공유 서비스 간의 갈등을 언급하며, 신규 산업도 규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
 - 주정부의 성급한 제안이 갈등을 촉발했다고 비판
 - 승차공유 서비스 등 디지털 플랫폼 사업의 장단점을 언급하며, 규칙 준수를 강조
 - “그들이 바르셀로나에서 일을 할 수는 있지만, 다른 모든 시민과 마찬가지로 규칙을 준수할 때만 일을 할 수 있다. 불법과 규칙 위반에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 2개의 트램 노선을 연결하는 사업을 완수할 것
 - 현재 정체상태에 있는 트램 노선 연결사업을 언급하고, 특정 정당을 위한 사업이 아닌 많은 시민이 원하는 사업임을 강조

주택·불평등 문제 해결 노력

- 주택 접근성 향상과 불평등 퇴치 정책에 긍정적 평가
 - 위 두 가지 정책을 위해 시정부의 투자를 늘렸음을 강조
 - 소외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특성을 살려 개발하는 ‘플라 데 바리스’(Pla de Barris) 정책에 1억 5천만 유로(1,920억 원)를 투자하고, 급식 장학금을 2배로 늘려 학교 결석률을 낮춤

- 신규주택의 30%를 부담 가능한 주택으로 공급하는 정책을 홍보

첫 번째 여성 시장

-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는 정부’를 이끄는 자로서 더 많은 여성이 드러나도록 할 것
 - 참석자 중 한 명이 ‘자부심과 책임감’으로 살았던 바르셀로나 최초의 여성 시장으로 시청의 여성화에 관한 시장의 의견을 문자 위와 같이 답함
 - “거리에 여성은 거의 없고, 대부분 성녀나 여왕뿐이다”는 농담을 인용해 여성이 더 많이 드러나야(visible) 함을 강조

불법 노점 규제, 정치범 구금 반대, 난민구조 보트 출항 등 주장

- 불법 노점을 허용하지 않으며, 매주 많은 인력을 투입해 물건을 압수 중
 - 불법 노점은 카탈루냐 광장과 지하철역 로비의 과밀화 문제와 함께 안전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규제할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
- 카탈루냐 독립에 관여한 정치범을 투옥하는 사태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임을 강조
 - 카탈루냐와 스페인 모두에게 적합한 방법을 찾아 지방선거에 적용해야 할 것
- 바르셀로나항에 정박 중인 난민 지원 단체의 보트가 출항할 수 있도록 요청
 - 지중해 난민 구조를 돕는 NGO 오픈 암스(Open Arms) 보트가 지난해 바르셀로나항에 입항한 뒤 정부의 봉쇄로 출항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우리는 그들이 항구를 떠나 생명을 구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국가에 석방을 다시 한 번 요청했습니다”

<https://www.elperiodico.com/es/barcelona/20190123/ada-colau-alcaldesa-responde-elecciones-municipales-7263943>

https://ajuntament.barcelona.cat/alcaldesa/es/mediateca?field_data_value_videos%5Bvalue%5D=&field_data_value%5Bvalue%5D%5Byear%5D=2016&tid=158&page=24

진 광 선 통신원, sunnyice@hanmail.net

영국 런던市

사디크 칸(Sadiq Khan) 시장

‘런던은 열려 있습니다’ 슬로건 아래 열린 마음·다양성 강조

- 브렉시트(Brexit)라는 국가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런던은 세계를 향해 열려 있을 것
 - 2019년 브렉시트 결과로 어떤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런던은 모든 유럽연합(EU) 국가와 유럽인에게 열려 있음을 선언
 - 영국 총리 테리사 메이(Theresa May)의 브렉시트 협상 전반에 반대의사를 표명
 - 유럽연합을 떠나게 되더라도 런던시민은 자랑스럽고 포용적인 의식을 바탕으로 열린 마음을 가지는 한편, 폐쇄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
 - 템즈강 남부에서 새해맞이 불꽃놀이 축제를 개최하고, 메인 슬로건인 ‘London is Open’을 7개 국어로 안내
 - 불꽃놀이 축제를 다양한 유럽 시민과 함께하여 전 유럽과 세계를 향해 영국과 유럽은 하나라는 모습을 보임
- 열린 마음(Open-minded)과 다양성(Diversity)을 강조
 - ‘London is open’이라는 슬로건은 무엇보다도 영국과 런던시민의 정체성이 다른 국가와 다양한 배경의 사람을 포용하는 데에 있음을 의미
 - 또한, 런던은 이전에도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어떤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비즈니스 분야는 물론 다양한 재능과 아이디어에 열려 있을 것임을 강조
 - 앞으로 펼칠 다양한 정책과 공공·민간 서비스에도 열린 마음과 포용성은 변치 않을 것을 언급

<https://twitter.com/sadiqkhan/status/1080161522150752257?lang=en>

<http://www.ladbible.com/news/uk-sadiq-khan-sent-an-anti-brexit-message-with-the-london-nye-fireworks-20190101>

<https://www.mirror.co.uk/news/politics/new-year-2019-sadiq-khan-13798845>

정기성 통신원, jkseong71147@gmail.com

이탈리아 밀라노市

주세페 살라(Giuseppe Sala) 시장

2018년 성과에 감사하고, 외곽지역 발전 중심의 3가지 주요 목표 발표

- 2018년 시민의 노고와 시정부를 향한 응원에 감사
 - 관료주의 폐해로 도시 공사 진행이 늦어진 데에 양해를 구하고, 더 나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고의 결과물로 보답할 것을 약속
 - 균등한 지역 발전 등 지금까지 추진하던 정책을 멈추지 않고 지속해 나가는 것이 올해의 목표
- 2019년의 목표 세 가지
 - 밀라노 중심부와 주변부 간의 격차 줄이기
 - 밀라노의 전 외곽 지역이 모든 부문에서 중심부와 같은 수준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더 나은 기본 서비스 제공 약속
 - 대중교통·안전·보건 등 기본 서비스 면에서 밀라노는 이미 최고 수준이지만, 이탈리아를 넘어 유럽 최고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도시가 될 것
 - 국제적인 도시의 명성과 위상을 계속 지켜나갈 것
 - 국제도시 밀라노를 지속 홍보하여 국제적인 투자를 더 활성화하고자 함
 -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관광 산업에 더욱 치중할 예정
 - 이 정책이 2026년 동계 올림픽 개최지 선정에 이바지하기를 바램
- 세계 최고의 열린 도시 모델 구축 강조
 - 끊임없이 밀라노의 가치를 높여주고 있는 모든 시민에게 감사를 전하며 세계에서 가장 열린 도시의 이상적인 모델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의 임무임을 강조

https://milano.repubblica.it/cronaca/2018/12/31/news/milano_intervista_beppe_sala_fine_anno-215574916/

<https://milano.fanpage.it/milano-gli-auguri-del-sindaco-sala-per-il-nuovo-anno-lobiettivo-e-ripartire-dalle-periferie/>

김 예 림 통신원, yereumkim@gmail.com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아니스 바스웨단(Anies Baswedan) 주지사

작년 한 해 시민·주정부의 성과에 감사하고, 새해에도 노력 당부

- ‘모든 사회 구성원을 위한 자카르타’를 유지해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함을 강조
 - 시민이 정의·번영·평화를 느끼고 생업에 안심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 것을 다짐
 - 주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을 받는 시민에게 ‘노동자 카드’를 발급할 계획
 - 대중교통 무료 이용과 식량 보조금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2019년부터 본격 운영
- 우기가 끝날 때까지 홍수 등의 재난 안전에 주의하고 청결하고 올바른 하천 이용을 당부
 - 새해를 앞두고 12월 26일 새로 제정한 수직형 배수설비 조성에 관한 주지사 행정령 2018년 131호를 바탕으로 빗물·지하수·토양을 효과적으로 관리
- 2018년 8월 아시안게임을 맞아 4월부터 시범 운영한 차량 2부제를 2019년에도 계속 시행
 - 차량 2부제 운행제한에 관한 주지사 행정령 2018년 155호 제정
- 또한, 4월 17일에 함께 치를 예정인 대선·총선이라는 큰 정치적 행사를 앞두고 평화로운 한 해가 되기를 기원
 - 시민사회가 분열되는 일 없이 성숙한 민주시민의 자세를 보이고 자카르타와 인도네시아를 위해 많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쏟아낼 것을 촉구
- 2018년 인도네시아를 강타했던 롬복 지진, 술라웨시 지진해일, 반텐 지진해일을 상기시키며 재난재해에 의연하게 대처할 것을 당부
 - 도시와 시민의 회복 탄력성(resilience) 향상이 앞으로의 과제
 - 아니스 주지사는 1월 4일 롬복 지진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중앙정부의 재건 프로그램이 지지부진함에 따라 자카르타 주정부에서 마련한 기금을 전달하고 고통 분담을 약속
- 더 강한 연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모두가 행복한 자카르타 만들기를 고대
 - “2019년 긍정적인 태도로 더 열정적으로 강하게 연대하고 서로를 돕고 신뢰하여, 앞으로 더욱 부강해질 인도네시아의 국민으로서 함께 힘을 합쳐 더 발전된, 그리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자카르타를 만들어 갑시다.”

<https://www.tribunnews.com/metropolitan/2018/12/31/anies-baswedan-jadikan-momen-pergantian-tahun-untuk-syukur-capaian-setahun-ke-belakang>

<https://megapolitan.kompas.com/read/2018/12/31/22412571/harapan-anies-di-2019-jakarta-damai-meski-tahun-politik>

<https://metro.tempo.co/read/1160468/tiga-harapan-anies-baswedan-di-perayaan-tahun-baru-2019>

<https://www.liputan6.com/news/read/3860683/gubernur-anies-tahun-2019-tunjukkan-jakarta-matang-berdemokrasi>

<http://wow.tribunnews.com/2018/12/31/bagikan-program-kartu-pekerja-anies-berikan-fasilitas-transportasi-gratis-hingga-subsidi-pangan?page=all>

박재현 통신원, jaehyeon.jay.park@gmail.com

일본 도쿄都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지사

새로운 시대의 막이 열리는 해, 2020년 도쿄올림픽 성공·도쿄 지속 발전에 전력

- 2018년에는 그동안 추진해온 주요 시책이 성과를 거둠
 - 보육원 대기아동 줄이기 대책에 많은 힘을 쏟은 결과, 10년 만에 도 내 대기아동 수를 5천 명 대로 낮춤
 - ‘간접흡연방지조례’, ‘장애인차별해소조례’, ‘인권존중조례’, ‘중소기업진흥조례’ 처럼 도쿄가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많은 조례를 제정
- 올해는 2020년 도쿄올림픽의 성공과 도쿄·일본의 지속 성장을 추구하는 도쿄도에게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 전날 구마모토에서 있었던 진도 6의 지진을 언급하며, 재해대책을 부단히 마련하고 있음을 강조
 - 기후변화 대책을 포함한 ‘도시력 강화’, 일본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일하는 도쿄’, 다양한 사람을 이어주고 서로 돕는 ‘사람과 사람의 연결’을 세 가지 축으로 제시 - 이를 발판으로 삼아 달성해야 할 목표를 향해 세계를 바라보며 나아갈 것
 - 앞으로 2년은 도쿄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
 - 올 9월 예정인 럭비월드컵과 올림픽, 장애인올림픽 등 세계의 주목을 받는 대회를 연이어 개최하므로, 세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준비에 힘을 쏟을 것
 - 또한, 국가의 중대사인 퇴위식과 즉위식이 이어질 예정
 - 올해는 2020년 도쿄올림픽의 성공과 도쿄·일본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큰 에너지를 응축하는 해가 되기를 바램
 - 올해는 돼지의 해이지만, 고서에서 해(亥) 자는 초목의 생명력이 종자 속에 가두어진 상태를 의미한다고 하며, 2020년을 대비한 착실한 정책 수행을 다짐
 - 올해는 도민 여러분이 빛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마음으로 기원

<http://www.metro.tokyo.jp/tosei/governor/governor/kishakaiken/2019/01/04.html>

박재호 통신원, jaehog@naver.com

일본 교토市

다이사쿠 카도카와(門川大作) 시장

교토의 강점인 ‘문화’를 도시경영 이념으로 삼아 나아가야

- 도시의 회복력, 공격적 경영, 사람 중심,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주요 내용으로 한 신년사를 발표
- ‘문화’를 핵심으로 한 도시경영을 추진
 - ‘세계문화자유도시선언’(世界文化自由都市宣言) 후 40년간 전통을 살리면서 ‘세계와 교류하고, 뛰어난 문화를 계속 창조하는 새로운 문화도시’라는 이상을 실현
 - 시대의 변화에 문화를 바탕으로 대응해 나갈 것
 - 오늘날에는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한편, 인구 감소, 저출산 고령화, 자연재해, 지구온난화 등 심각한 과제를 극복해야만 하는 시대가 도래
 - 이러한 시대에서 교토다움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문화’를 도시경영 이념이자 모든 정책의 대전제·기반으로 삼고, ‘회복력’과 ‘SGDs’(지속가능개발목표) 대책과 융합할 필요
- 회복력 있는 도시 교토 실현
 - 시는 최근 2년간의 자료 검토를 바탕으로 2019년 3월 ‘교토시 회복력 전략’을 수립할 계획
 - 인구 감소·저출산 대책, 방재 대책, 안심·안전한 마을 만들기, 지역 기반 복지·교육·육아 지원, 위기에 강한 교토경제 확립, 경관 보호, 거리 보전·재생, 지속가능한 재정 확립 등 시민 생활에 관련된 모든 정책을 ‘회복력’의 관점에서 점검
 - 교토만이 가능한 ‘문화에 의한 회복력’ 추진을 강조
 - 교토의 강점인 ‘문화’를 중심으로 다방면에 걸친 정책의 융합·제휴를 한층 강화
- 교토의 미래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공격적인 도시경영
 - ‘교토 성장전략’ 추진에 힘입어 도시의 격이 향상되고 시민세가 착실히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의 재정은 어려운 상황
 - 장래의 조세부담 능력을 강화해 지속가능한 재정을 확립할 필요
 - 교토에서 살며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 교토에서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기업 수요를 파악하고, 교토 시민이나 중소기업·지역기업과 연결

- 2018년 12월 발족한 ‘교토 미래를 뒷받침하는 재원 창출 프로젝트팀’을 선두로 기
부나 명명권(Naming Rights) 등 자주 재원 확보에도 전략적으로 임할 것을 강조
- 올해는 ‘교토 경제센터’를 개설하고, ‘지역기업선언’을 바탕으로 교토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
- 사람 중심의 일하는 방법 개혁, 진정한 워크·라이프 밸런스 추진
 - 시정부는 10년 전 기본계획에 ‘진정한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명시
 - 생산성을 높이는 일하는 방법을 직원 개개인이 실천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성
장을 실현하고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
 - 각 직장에서 과감하게 일하는 방법 개혁을 단행할 것을 주문
 - 직장의 의사소통이나 개방성을 높이고 팀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웃는 얼굴을 강조

<http://www.city.kyoto.lg.jp/gyozai/page/0000246346.html>

권용수 통신원, dkrrnlwjstjf@naver.com

일본 오사카市

히로후미 요시무라(吉村洋文) 시장

앞으로도 풍부한 오사카 실현 목표로 시민 서비스에 충실하고 성장·개혁 추진

- 2019년에는 신년사를 처음으로 웹과 스카이프를 이용해 발표
 - 이는 ICT(정보통신기술) 활용에 힘써 효율적인 회의 문화를 만들고, 시민 서비스 충실화와 새로운 것에 도전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
 - 2019년에는 오사카의 미래인 어린이를 확실히 지원하는 토대를 만들기를 부탁
 - 올해의 포부로 앞으로도 풍부한 오사카 실현을 밝힘
- 시민 서비스 충실
 - 아이를 키우고 싶은 도시가 되지 않으면 지역의 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생각에 따라 어린이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를 강조
 - 2019년에도 어린이의 교육·의료비 무상 목표를 향해 현행 4·5세 어린이의 무상 교육을 3세까지로 확대하고, 18세까지의 의료비 무상화 정책도 착실히 추진
 - 어린이의 학력 향상을 위해 교육 환경을 보완하고, 보육원 대기아동 제로, 아동 빈곤 대책, 아동학대 방지 등 안심하고 육아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를 추진
- 지금의 오사카를 있게 한 고령자 지원을 강조
 - 노인요양원 정비 속도를 높여 요양원에 입소하지 못하는 고령자가 없도록 할 것
 - 홀몸노인 비율, 고령화율과 함께 치매에 걸리는 고령자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에 주목하고 치매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
- 장애인·여성·젊은 층 등 의욕있는 사람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구축할 것
-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
 - 2018년의 태풍 21호 강타, 오사카 북부 지진을 교훈 삼아 재해 인식을 제고하고, 조직체계를 강화해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
- 오사카부(府)와 일체가 되어 오사카 전체의 성장을 도모
 - 2025년 만국박람회에서 ‘생명이 빛나는 미래사회 디자인’이라는 테마를 구체적으로 구현하여 성공을 도모
 - 도시재생 사업인 우메키타 2기 사업을 포함해 나카노시마 마을 만들기, 난바역 앞 광장, 미도스지 보도화, 오사카성 공원 등의 개발을 적극 추진

○ 시정 개혁

-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재정 규율을 엄격하게 정비
- ICT화를 바탕으로 낭비를 없애고 행정 효율화를 도모
- 시 직원의 의식 제고
- 신뢰받는 행정으로 시민의 생활 향상, 복지 증진, 오사가 성장에 이바지할 것

<http://www.city.osaka.lg.jp/seisakukikakushitsu/page/0000457447.html>

권용수 통신원, dkrrnlwjstjf@naver.com

중국 베이징市

천지닝(陈吉宁) 시장

2018년의 업무 회고

- 도시종합 계획을 전면 시행하고, 특별 활동의 성과를 촉진·제고
 - 시내 계획의 등급 관리체계 수립, 생태 통제선과 도시 개발 한계 관리방법 제정, 역사문화 명승지 보호·발전 계획을 발표·실행
 - 일반 제조업 기업 656곳을 퇴출하고, 시장과 물류센터 204곳의 운영을 원활하게 함
 - 공공서비스 자원의 균형 배치를 강화
 - 도시 여가 공원 28곳과 소형 녹지 121곳을 건설해 시민이 반경 500m 안에서 공원녹지를 이용할 수 있는 비율을 80%로 높임
-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대외개방을 전방위로 확대
 - '9+N'(9개의 주요정책과 N개의 연계 조치) 정책 조치와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3년 행동계획을 연달아 발표
 - 중국 내 22개 도시 비즈니스 시범평가에서 베이징시가 1위를 차지
 - 기업 규제를 완화하고 설립절차 등을 개선
 - 기업설립 소요기간을 5일로 줄이고, 기업설립 비용을 완전 무료화
 - 영세기업은 방문·심사·투자 없이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어 매년 영세기업이 절감하는 비용이 약 12억 위안(2,020억 원)에 달함
- 과학기술 혁신센터 건설 박차, 고급정밀첨단산업의 발전 추세 양호
 - 베이징양자정보과학연구원·뇌과학연구센터 등 새로운 연구개발 기관을 조직하여 종합적인 국가 과학기술센터 건설을 추진
 - 3,000억 위안(50조 6,700억 원) 규모의 과학기술 혁신 모신탁을 설립
 - 시내 고급기술기업·혁신기업 등 증가
 - 시 전체의 국가 고급기술기업은 2.5만 곳으로 25% 증가했으며, 하루 평균 신설 혁신기업은 199곳이고, 시 전체의 기술계약거래액은 10.5% 증가
 - 10개의 고급정밀첨단산업 발전 지도의견 실행
 - 5G·인공지능·의약건강·무인자동차 등 산업발전 행동계획과 방안을 제정
 - 평균 규모 이상의 고급 기술 제조업 부가가치는 두자릿수 넘게 성장하고, 평균 규모 이상의 문화산업 수입은 1억 위안(168억9,000만 원)에 달함
 - 금융·과학기술·정보 등의 서비스업이 대외경제 성장에 공헌하는 비율이 60% 이상

- 생태 환경 보호를 지속 강화하고, 도시 정비 능력을 한층 제고
 - 푸른 하늘 지키기 3개년 행동계획을 제정하여, 경유 화물차·먼지·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유발하는 오염을 관리
 - 450곳의 마을에서 '석탄을 청정에너지로 대체' 과제를 완료하고, 평원지역은 '석탄제로화'를 실현
 - '깨끗한 강 행동'과 수원지 환경 보호 특별행동을 전개하고, 시 전체의 오수 처리율을 93%까지 높임
 - 농업용 토양 오염 표본조사를 완료하여, 토양 환경 측정 네트워크를 구축
 - 교통 종합 정비를 추진해 교통체증 심화 추세를 해소
 - 자동차 운행 정지 조례를 실행하고 법의 집행 역량과 빈도를 확대
 - 여행객이 택시를 잡기 어렵거나 승차 대기 환경이 차이가 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베이징남역·베이징서역·베이징역의 71개 정비 과제를 수행
 - 공용자전거 관리감독 서비스를 운영
- 농촌진흥전략을 강력 전개하고, 빈민 구제와 빈곤 추방을 지속 추진
 - 농촌 공공 화장실 510곳을 개선하고, 농촌 주민 거주 환경 1,081곳을 정비
 - 산간지역을 불법으로 점유하여 건축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베이징 농산품 녹색 우수품질 안전 시범지역 등을 신설
 - 빈민구제 협력 3년 행동계획을 심층 실행
- 민생과 복지를 지속 개선하여 시민의 성취감을 더욱 높임
 - 노후주택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등 31개의 중요 민생 업무를 모두 실행
 - 주택가격 조정 능력을 유지하여, 상품 주택가격의 안정을 지속
 - 양로보장 대우와 조정 시스템을 개선하고, 양로서비스 시설 182곳을 새로 건설
 - 양로서비스 보조금 제도 범위를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
 - 취업 창업 정책을 개선하여, 증가 취업자 수가 42.3만 명 달성

2019년의 주요 정책 과제

- 기획의 방침을 유지하고, 징진지(京津冀) 협동 발전을 힘써 추진
 - 도시종합계획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한편, 도시 품질 제고와 거주 환경 개선특별행동을 추진하고 원활하게 정비
 - 도시여가공원·소형녹지 등 1,600헥타르(16km²)의 녹지를 새로 조성
 - 도시 부도심을 고품질로 건설하고 관리하고, 시급 행정기관 이전을 계기로 적합한 기능과 산업을 부도심으로 이동하는 사업을 추진

- 개혁개방을 유지하고, 베이징의 고품질 발전을 힘써 추진
 - 교육·의료 분야의 개방 단계를 확대하는 등 더 높은 수준의 개혁개방을 추진
 - 2019년 베이징국제서비스무역박람회를 개최하고, 금융·과학기술·정보·문화창의 등 서비스 분야의 출구를 확장하여 서비스 무역의 국제경쟁력을 제고
 - 세계적으로 유명한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기구를 유지하고, 회계·법률·컨설팅 등 전문 서비스 기관의 지역본부를 베이징에 들여 금융업 개발을 한 단계 확대
 - 비즈니스 환경을 지속 개선
 - 베이징 효율, 베이징 서비스, 베이징 표준, 베이징 성실의 4대 표준사업을 시행
 - '9+N' 정책 2.0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건축허가 처리와 납세 등의 분야를 개선
 - 민영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공정 시장경쟁 환경을 조성
 - '1+X' 정책을 발표하여, 상품소비와 서비스 소비를 확대하였으며, 야간경제 소비 촉진 정책을 시작해 주요지역의 상점·슈퍼·편의점 등의 연장영업을 장려
- 혁신 드라이브를 유지하고, 전국 과학기술 혁신 중심지로서의 영향력을 강화
 - 과학기술체계 개혁을 지속 추진
 - 과학기술을 사랑하고, 혁신을 이해하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전문기관과 인재를 집중 육성하고, 과학기술 성과를 촉진하는 정책과 자금 지원체계를 개선
 - 지식재산권 보호와 운영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시스템을 개선하여 세계적인 서비스 기구와 법률인재를 적극 유치
 - 기초재료, 광전자 등 중요 영역에서 신형 연구기관을 설립하고, 5G·인공지능·의약 건강 등에 집중하여 국가 혁신전략 요구에 부응하도록 함
 - 중관춘 국가인재 관리 개혁 시범지역 건설을 추진하여, 30세 이하 청년 혁신 창업 인재 성장을 지원하는 등 국제적인 인재를 육성
 - 신에너지 자동차, 제3세대 반도체 등 고급·정밀·첨단 산업을 확대
- 환경문제 주도력을 유지하고, 도시의 세밀한 관리에 노력
 - 경유 화물차 관리를 최우선으로 대기오염 예방책을 지속 추진하고, 먼지·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유발하는 오염을 엄격하게 관리
 - 교통 종합정비 연도별 행동계획을 제정하여 교통 종합관리 역량을 확대하고, 수요 조절 측면에서 공유자동차를 장려
 - 100만 묘(亩, 1묘는 666.7㎡) 삼림 조성 녹화사업, 시내 신규 25만 묘 산림녹화 지역 조성 등 생태환경을 한층 개선
 - 시 전체의 오수 처리율을 94%로 높이는 등 오수 관리에 집중
 - 쓰레기 분리에 노력을 기울여 생활 쓰레기의 자원화 비율이 59%가 되도록 함

- 농지 토양 환경 품질 등급별 목록을 작성하여, 토양 위험 관리를 실행
- 빅데이터 관리 플랫폼을 건설하여, 교통·정책서비스·도시관리 등 영역에 활용
- 시민의 요구, 언론의 보도, 시민서비스 핫라인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즉각 대응하고, 공공이익에 반하는 위법행동의 민사 소송 제기를 지원
- 문화적 자신감을 지속 유지하고 전국 문화 중심 건설을 추진
 - 도시의 문화 품질을 제고하고, 대국의 수도로서 개방·포용·자신이라는 인문학적 이미지를 연출
 - 역사문화 도시의 보호를 추진하고 문화재 보호업무체계를 개선하여, 문화재 사용 기관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문화재 이용 활성화와 안전 관리를 강화
 - 문화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박물관·도서관 등 문화시설 조성을 지원해 책 향기가 있는 베이징을 건설
 - 공업시설의 철거 공간 등을 찾아내 도시 문화예술 공간으로 확장
 - 도시문화 브랜드를 구축하고 베이징 문화재산권 교역센터를 건립하여 ‘문화+’ 시장 주체의 번영발전을 추진
 - 베이징 국제영화제, 국제음악제, 국제 디자인워크 등을 개최해 도시의 문화개방 성과 국제적인 영향력을 제고
- 도시와 농촌 지역의 협동 발전을 유지하고, 농촌의 진흥을 위해 노력
 - 농촌 생활환경의 개선, 도시형 농산물의 고품질 발전, 농촌 혁신창업에 인재 지원 등 농촌 진흥전략을 철저하게 실행
 - 교육·의료·주택의 세 가지 영역에서 저소득 농민의 보장 수준을 높임
 - 중점지역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다싱·이좡·팡산 등 남부지역에 더 수준높은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
 - 옌칭·화이러우·미윈 등 지역에 국가 삼림 도시를 건설하고, 녹색발전기금 설립과 녹색채권 발행 등 사회자본을 확대 투입해 녹색발전 시범지역을 운영
 - 빈민구제와 지원협력을 착실하게 수행
- 인민 중심 정책을 유지하며, 민생보장의 정밀화와 정교화에 노력
 - 시민이 더 많이, 더 직접적으로, 더 현실적으로 성취감과·행복감·안전감을 얻도록 노력
 - <수도교육현대화 2035>와 5개년 실시방안을 실행하여, 인재양성 기본과제를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등 교육사업의 발전을 우선적으로 추진
 - 취업과 사회보장 지원정책을 적극 펼치고, 양로와 의료를 결합하여 추진하며 양로 서비스 시설 150곳을 신설

- 주택임대시장의 안정을 꾀하는 정책조치 시행
- 건강한 베이징 건설을 위해 의료용품 종합개혁, 의료 서비스 가격 조정, 공립병원 보수 시범개혁을 추진하고 식품약품의 전 과정 관리감독을 강화
- 1,000km 건강 산책로 조성 등 시민 생활권 주변에 체육시설을 건설하고, 2019년 남자 농구 세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것

http://district.ce.cn/newarea/roll/201901/23/t20190123_31339081_4.shtml

박성은 통신원, yulshime@naver.com

캐나다 밴쿠버市

케네디 스투어트(Kennedy Stewart) 시장

주택정책 초점을 세입자에게로 전환

- 내집 마련의 꿈이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고 세입자에게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
 - 스투어트 시장도 임차인으로 살고 있으며, 밴쿠버에서 단독 주택의 소유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에 동의
 - 주택을 신축하더라도 기존 주민이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
 - 어떻게 하면 노후화된 인프라를 개선하면서 이주민을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
 - 재개발 시 이주민을 위한 임시 거처를 만든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의 이웃은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이지 거리의 가로수나 소화전이 아님을 강조
 - 지금까지의 주택정책에는 이러한 고민이 부족했으며, 앞으로 개선해야 할 것

노숙자 주거지 늘리고 약물 문제에 적극 대처

- 노숙자를 없애기는 불가능하지만, 그들이 거리에 있는 기간을 줄여야 할 것
 - 인구 구조상 노숙자는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이 문제를 근절할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없지만, 그들이 노숙자로 지내는 기간을 줄여줄 수는 있을 것
 - 모듈형 주택을 늘리는 방안이 주효할 것이며, 적절한 의료 서비스 제공도 필요
 - 최근 지방정부와 연방정부가 600여 개의 모듈형 주택 신축을 승인하였는데 앞으로 이와 같은 정책이 계속되기를 바람
- 노숙자를 포함한 도시 전체의 약물 오남용 문제에 적극 대처해야 할 것
 - 작년에 6천~7천 건의 약물 오남용 사례를 적발
 - 이 문제가 국가적 문제로 커지지 않도록 특별 전담반을 구성해 대처

지역 숙원사업인 스카이트레인 노선 연장 실현

- 밴쿠버의 오랜 숙원사업인 스카이트레인(SkyTrain) 노선을 UBC(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까지 연장하는 사업을 완수할 것
 - 노선 연장 계획은 TransLink(노선 운영사) 시장회의에서 수립한 10년 투자계획상 거의 확정되어 있으며, 이는 노선 연장이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증거
 - 지역 협력이 중요한 사안으로, 연관된 주변 지역의 시장 다수가 동의

- 노선 연장이 성사되면 UBC 재학생과 근로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은 물론, 고립된 지역의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

다원화된 의회의 장점 살려 시정 펼칠 필요

- 의원 간의 협력은 시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
 - 확실한 다수당이 없는 의회의 상황을 두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주정부 재정지원 요청이나 약물 오남용 전담반 구성 등의 사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등 긍정적 움직임 많아
 - 시장이 시의원들과 정기적으로 미팅을 갖는 등 관계 구축에 많은 노력
 - 절대 다수당이 없는 의회는 이전과 확실히 다르지만, 그 환경을 장점으로 활용
- 약물과 세입자 문제의 2가지 현안에 집중할 것
 - “위 문제 해결을 위해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시의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고민합니다. 저는 밴쿠버가 다른 도시의 모범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시민의 주거 스트레스를 줄일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 밴쿠버시장 케니디 스투어트 송년 인터뷰 맺음말, 2018년 12월 22일

<https://globalnews.ca/news/4773907/vancouver-mayor-kennedy-stewart-interview/>

장지훈 통신원, macgyvar@gmail.com

캐나다 에드먼턴市

돈 이베손(Don Iveson) 시장

“2018년은 쉽지 않은 해...우리가 이룬 성과는 자랑스러워”

- 2018년은 세계적·국가적·지역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은 해
 -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제 발전의 방식을 바꿔야 할 필요를 느꼈고, 증오범죄의 증가와 #MeToo와 같은 사회 운동 등 사회문화적 격변도 있었음
 -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산불과 같은 재해는 환경이 더 악화되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교훈을 상기
- 2018년의 에드먼턴은 차세대를 위한 도시 건설로 나아가는 한 해였다고 자평
 -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앨버타 주정부와의 장기자금 조달계약 확보 협상을 하이 라이트로 꼽고 싶어
 - 주정부와 에드먼턴시는 성공적인 협상으로 번영을 향해 나아가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었음
 - 앨버타주 성장의 바탕이 되는 기반시설 구축에 실질적 지분을 제공함으로써 앨버타주의 번영이 곧 에드먼턴의 이익이 될 것이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일 것
 - 도로·대중교통 등의 기반시설 투자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 우리의 아이들이 계속해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에드먼턴을 만들기 위해 노력
 - 주정부와 협력해 더 풍요롭고 생산적인 저탄소 도시를 건설할 것을 약속하고, 주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감사를 표시
- 기후변화 문제를 주도하는 도시로 세계의 주목을 받음
 -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와 함께 최초의 도시 기후변화 과학 콘퍼런스를 주최
 - 세계 각국의 지방정부 지도자 네트워크와 과학계가 만나 지역 차원에서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
 - 전 세계 4,700개 도시를 대표하는 단체가 에드먼턴 선언을 승인하였고, 피츠버그부터 다카르에 이르는 많은 도시가 서명
- 혁신적·효율적인 예산안을 만들기 위해 전념
 - 세금과 공공요금을 인플레이션의 영향권 밑으로 내리는 4년간의 예산작업을 완료
 - 시민 대상 주요 서비스를 지속하면서 세금을 합리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

- 지역교통 협의체 구성, 관광 활성화, 저렴한 주택 제공 노력
 - 13개 위성도시와 ‘지역교통 서비스 위원회’ 구성을 합의하였으며, 인근 지역사회와 함께 더 원활하고 안정적인 교통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
 - 강과 계곡 접근성을 높여 관광객 유입 증가
 - 더 많은 지역에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용도변경 완료
- 시의회 의사결정 과정을 개선·보완
 - 시장 사무실은 로비스트 등록제를 시작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
 - 시의회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윤리 고문과 청렴위원회 신설 제안
- 시민의 이동권 향상과 교통안전을 추구
 - 12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대중교통 무료 혜택을 제공하고, 저소득층이 싼 값의 월 정액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Ride Transit’ 프로그램을 확대
 - 대중교통의 안전에 투자해 월터데일다리에 산책로와 보행자구역을 신설하고, 50번가 열차 건널목과 차도의 분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 2018년 가을 국제연합(UN)을 초대할 자리에서 에드먼턴이 여성에게 더 안전한 도시가 되고 있음을 확인
- 예측할 수 없는 빠른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힘을 합해야 할 것
 - 과거에 간혀 변화에 저항하지 말고 혁신을 바탕으로 과감하게 변화를 포용하는 도시가 되어야 할 것
 - 안주하지 않고 더 성장할 수 있는 에드먼턴, 미래세대를 위한 도시, 행복한 휴일이 있는 도시가 되기를 바램

<https://doniveson.ca/2018/12/13/2018-year-in-review/>

장지훈 통신원, macgyvar@gmail.com

세계도시동향 제451호

발행인 서왕진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5102
발행일 2019년 3월 11일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 정책개발과 도시 관련연구에 참고할 가치가 있는 해외 주요도시의 정책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해외통신원으로부터 시의성 있는 사례와 정확한 현지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도시동향에 관한 문의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연구원 도시정보센터 출판팀으로 연락 바랍니다.
담당: 정연우(02-2149-1017, cyw797@si.re.kr)

ISSN 2586-5102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